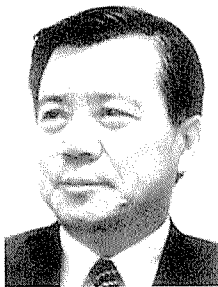


우리 다같이 기대를 갖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We Must Get Through This Together

김영수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Young-Soo



회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허탈과 실의에 지친 丁丑年은 갔습니다.

기대속에 戊寅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이 戊寅年이야말로 우리의 生業은 물론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대통령의 선출이라는 기쁨도 잊은 채 외환위기의 절망감 그리고 경제파탄의 허탈감속에서 「IMF 시대」라는 냉혹한 현실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제금융의 갈증, 성장을 하향조정, 금융 및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우리경제의 벼랑끝이 어디인지 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실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경쟁부재상황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위기탈출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피눈물나는 死鬪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 건축사 또한 범국가적 대열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선봉에서 적극적 협력자가 되고 능동적 견인차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축인이었고, 언제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건축사였기에, 오늘 이 국난을 돌파하는 모든 힘과 지혜도 우리의 몫으로 끌어 안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건축계도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기존의 관행과 의식 그리고 이기와 안일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모든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 내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가 국민과 함께 할 때 우리의 生業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건축 또한 그 미래도 보장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협회 또한 거듭나야 한다는 강인함과 비장함으로 재무장하겠습니다. 98년도의 통과 예산도 초긴축예산으로 재편성 하고, 사무처의 분위기도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인건비 동결을 넘어 가혹한 모든 조치도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격주간 근무제도를 폐지하여 광열비 등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책임근로

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극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발전사업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위기의 수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회원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지난해 기반을 구축한 건축정보센터를 본격화하고, 건축문화 및 건축정책의 발전을 위한 건축연구소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공제조합설립도 면밀한 계획을 통해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모성 사업이 아닌 협회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에는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협회가 아니라 자체수익사업으로 협회가 운영되도록 그 기반을 확실히 다져 놓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餓死직전에 내몰린 건축설계시장이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업무중단, 폐업속출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무기력함마저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티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克己와 自救策만이 생존의 방법입니다. 고통받는 국민, 위기에 몰린 국가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우리는 살아 남아야 합니다.

이제 혼자서는 안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소를 합치고 인원을 함께 활용하며 운영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더욱 專門化하고 特化하여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대감각과 구조조정을 놓치면 이겨낼 수가 없는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건축계는 전문화·대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물 종류별로 사무소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업종별로 대형화를 이루어 건축설계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한 전환을 꾀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무한 경쟁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대고객 서비스는 더욱 더 철저해야 합니다. 업무의 창출과 지속은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심을 잃을 때 우리 건축사 모두가 공멸하고 맙니다. 이런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건축주들의 심리적 안정회복과 건축활동의 조속재개에도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협회의 노력 또한 절실하고 긴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의 건축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건축관련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대폭 완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와 관련제도를 개정하고 개선하는데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불합리한 주차규정, 인허가 과정의 절차간소화와 투명성 보장, 생활과 동떨어진 건축법규의 일체 정리,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편의위주의 제도 통합정비 등 그야말로 실질적인 민간건축물의 자율건축시대를 열어가는데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합리적 건축활동과 합목적적 도시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회의 정책적 지원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戊寅年 새해가 비록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인내와 그 노력의 결과는 향후 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도전과 변화의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시련과 극복의 궁극적 목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이라면 새로운 틀과 사고속에서 참다운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건축사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바로 우리 건축사의 힘이고, 영광의 탈출 또한 우리 건축사의 보람입니다. 미래를 향한 민족의 비전 또한 건축문화와 더불어 영원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해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협회와 건축사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영원불멸의 해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꼭 함께하면서 더없는 기대와 희망으로 충만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戊寅年 새해 아침에